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전략시장정책과 김영환 과장(02-2110-4632), 신지현 서기관(4630)

한-우즈벡 산업자원협력 확대 및 우리기업 활동지원
-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EPC계약 등 -

□ '11.8.23(화)~24(수) 기간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산업자원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-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함

□ 24일(목)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수르길(Surgil)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사업(총 사업비 41.6억불, 이하 '수르길 프로젝트')의 초석제막식이 진행되었음

○ 우즈벡은 수르길 프로젝트가 자국의 천연자원(가스)을 원료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석유화학산업 육성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동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, 이러한 점을 감안 양국 대통령이 동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초석을 세움

-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과 수르길 지역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의회 의장(에니아조프)이 함께 수르길 현장에서 초석을 제막하고 이를 양국정상이 한-우즈벡 비즈니스 포럼(24일)에 참석하여 화상으로 참관하였음

○ 금년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르길 프로젝트는 가스전개발과 석유화학플랜트 건설이 결합된 한-우즈벡간 대표적 협력사업으로 동 사업 성공시 자원과 산업기술을 결합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

*** 비즈니스 포럼계기 체결대상 MOU는 아직 미확정입니다.**

□ 또한 [한-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서는] '한-우즈벡 섬유기술 협력 연장 MOU', 한-우즈벡 희유금속 공동탐사 MOU 등 총 [7]건의 문건이 체결되었음

○ 우즈벡은 세계 2위 원면수출국으로 지경부는 '05년부터 양국 섬유산업 협력을 통하여 기술자 초청연수, 현지 기술지도 등을 추진해온 바 있으며 금번 MOU연장을 통해 우리기업의 투자확대 및 시장진출, 섬유기계 및 염료 수출, 원면·면사 수급의 안정, 퇴직인력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

* 對우즈벡 섬유수출(백만불) : ('05) 16 → ('07) 27 → ('09) 49 → ('10) 51

○ 이외에 지질자원연구원과 우즈벡 국가지질위원회간의 '희유금속 공동탐사 협력MOU'가 체결됨에 따라, 우즈벡 중부의 롤라불락-바얀카라(Lolabulak-Bayankara)지역의 희유금속 유망광산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○ 이외 KOICA의 4개의 무상원조사업(총 1,050만불 규모)으로 배전 손실감소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,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범온실 설치, 타쉬켄트 2개 대학에 전자도서관 구축, 도시계획 지리정보 훈련센터 구축협력 MOU가 체결되었음 (끝)

[별첨]

수르길 가스전개발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

□ 사업 개요

○ 내　용 :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을 우즈벡 석유가스공사(UNG)와 공동개발하고, 인근에 가스화학플랜트 건설·운영

○ 사업자 : 한국컨소시엄 50%(가스공사/호남석유화학 각 22.5%, STX에너지 5%), UNG(50%)

○ 사업비 : 약 40억불

○ 생산품 : HDPE(고밀도 폴리에틸렌), PP(폴리프로필렌), 메탄가스



□ 추진 경과

○ '06. 3월, 가스공사-UNG社간 수르길 사업 양해각서 체결

○ '07.10월, 한국컨소시엄 구성

○ '08. 2월, 합작회사 설립협정서 체결('08.5월, Uz-Kor Gas Chemical 설립)

○ '09. 5월, 합작회사-수은·수보간 금융협력 MOU 체결

○ '10. 2월, 한국컨소시엄-우즈벡 정부간 투자협정서 체결

○ '10.5월 이후,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위한 사업 실사

□ 향후 계획

○ '11년 하반기중 금융협약서 체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완료

○ '12년초 가스화학플랜트 착공 추진